



# 금쪽상담소 상담 일지

이름: 현승혁

학번: 20225213

상담 일자: 10/3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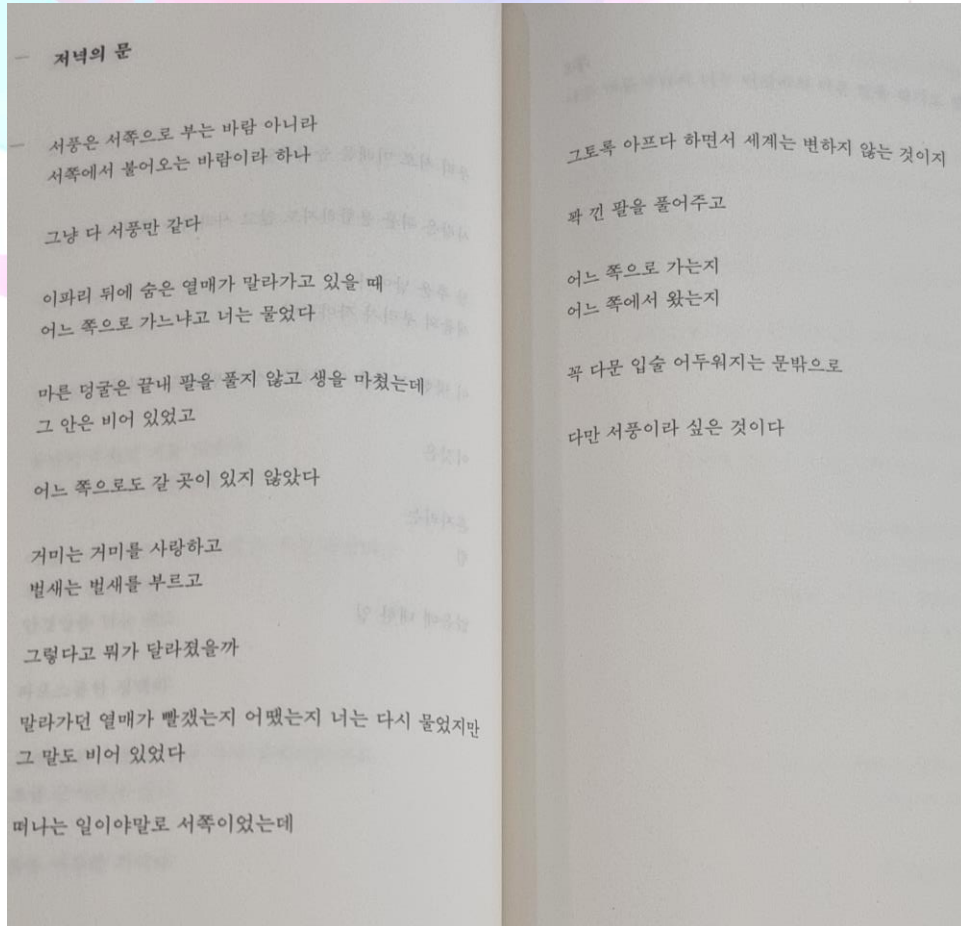
## Q: 금쪽이의 고민이 무엇인가요?

A: 병역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. 전문연을 하면 대학원 입학 시 점수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. 더불어 과학기술원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축소된다. 그리고 현재 무릎에 대한 병환이 군대에 갈 경우 악화될까봐 두렵다. 현역을 가기엔 건강과 시간 낭비 때문에 두렵고, 전문연을 하기에는 전문연 때문에 원하는 대학원에 진학할 수 없을까봐 두렵다..



## Q: 금쪽이에게 어떤 시를 추천해 주었나요?

### 1. 저녁의 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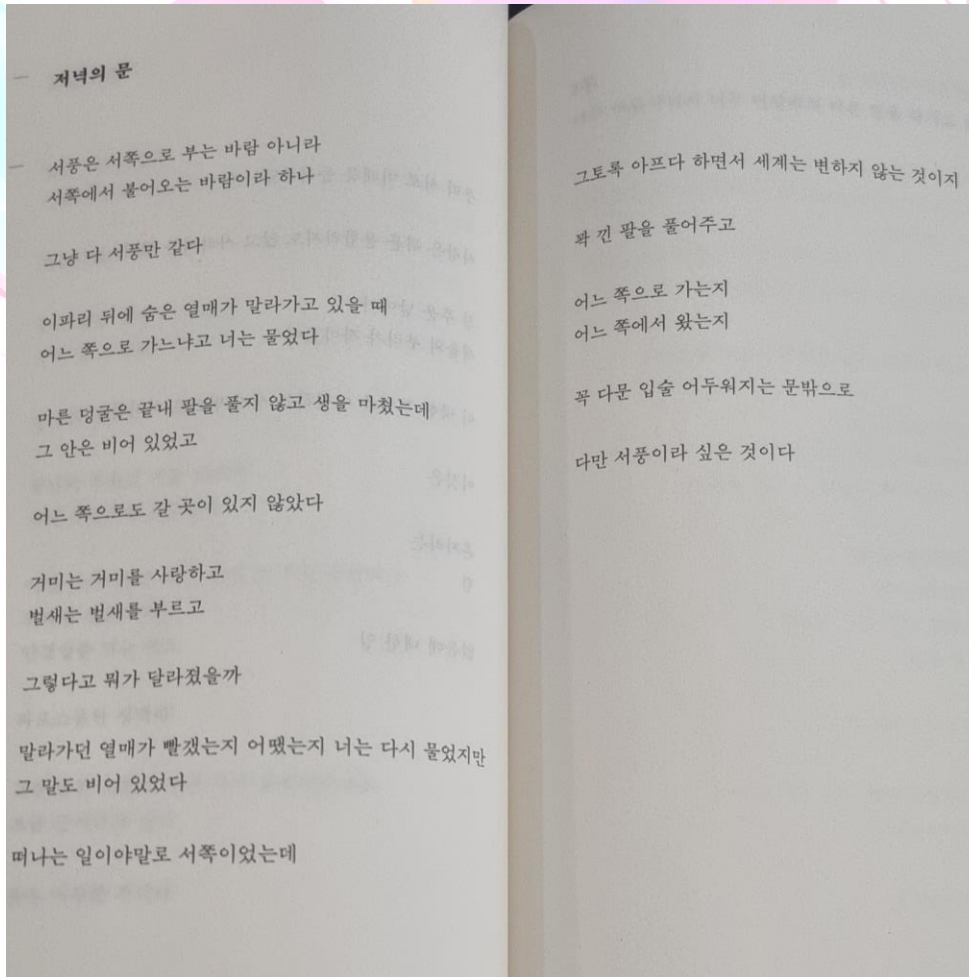
군대와 관련된 고민을 승혁이가 가지고 있었다. 각 선택지들 속에서 어느 것이 더 최선의 선택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이 시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.

‘그냥 다 서풍만 같다’ 이 구절을 읽으며, 모든 선택지가 비슷하고 안 좋은 점만 보여 고민을 할 승혁이의 모습이 떠올랐다.

‘떠나는 일이야말로 서쪽이었는데’ 이 구절을 통해, 선택하는 선택지가 결국 최선의 선택지임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담아 냈다.

전반적으로 이 시를 읽으면서 든 생각은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해서 고민을 가지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졌던 것 같다. 길이 잘 분간이 안 가서 전부 같은 길로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듯 보였다. 하지만, 생각을 전환하며 사실을 그렇게 힘들어할 일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.

## 2. 그해 안개



선정 이유: 승혁이의 고민이 군대와 전문연에 관한 여러 방안들에 대한 선택의 고민이었다. 이러한 고민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던 그 선택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선택이었으며, 후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시를 선정하게 되었다.

시 해석:

1 연-원했던 것이 멀리 흘러간다는 것이 그 당시에 선택하지 않은 다른 선택지들을 의미하고 그것들이 선택받지 못함으로서 멀리 흘러간다고 표현

4 연-서로 알아보지 못해 기뻐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표현

11 연~15 연-그 당시에 최선을 선택을 하였기에 지금 잘 이뤄내고 있고 그것을 후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.